



FRANCE

## ‘언론 신뢰’ 되찾으려 언론사·언론인·시민 모인다

최지선 / 파리 2대학 박사

2019년 12월 2일 프랑스에서는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 le Conseil de déontologiejournalistique et de mediation)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의 미디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여전히 기자들 사이에선 위원회 설립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급격히 하락하는 미디어 신뢰도

17세기부터 시작된 프랑스 언론 역사상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설립은 처음이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지만, 프랑스에는 언론과 미디어 이용자를 ‘중재’하는 별도의 기관이 여태껏 없었다. 물론, 프랑스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들은 있지만 그것이 이러한 중재기관을 통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간혹 몇몇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윤리위원회, 중재위원회 등을 운영하지만 그야말로 언론사 개별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지 언론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은 아니다. 300여 년이 넘는 오랜 언론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재기관이 마련됐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설립 이유가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잠깐, 프랑스 언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한가. 1898년 에밀 졸라(Emile Zola)는 <나는 고발한다(J'accuse)>는 기사를 통해 드레퓌스(Alfred Dreyfus) 사건의 진실을 고발하며 ‘언론의 진실 추구’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프랑스 언론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떠올리는 사건이며 프랑스 언론 이미지의 근원이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나치에 협조한 언론을 폐간하고 언론인들을 처벌해 ‘도덕적 언론상’을 정립한 역사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언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프랑스 언론이 정파적인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저널리즘은 미국의 저널리즘처럼 중립에 기반한 객관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프랑스인들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양시양비론을 택하기보다는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진실을 바탕으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과해치는 것을 ‘올바른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러한 프랑스 언론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이미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언론은 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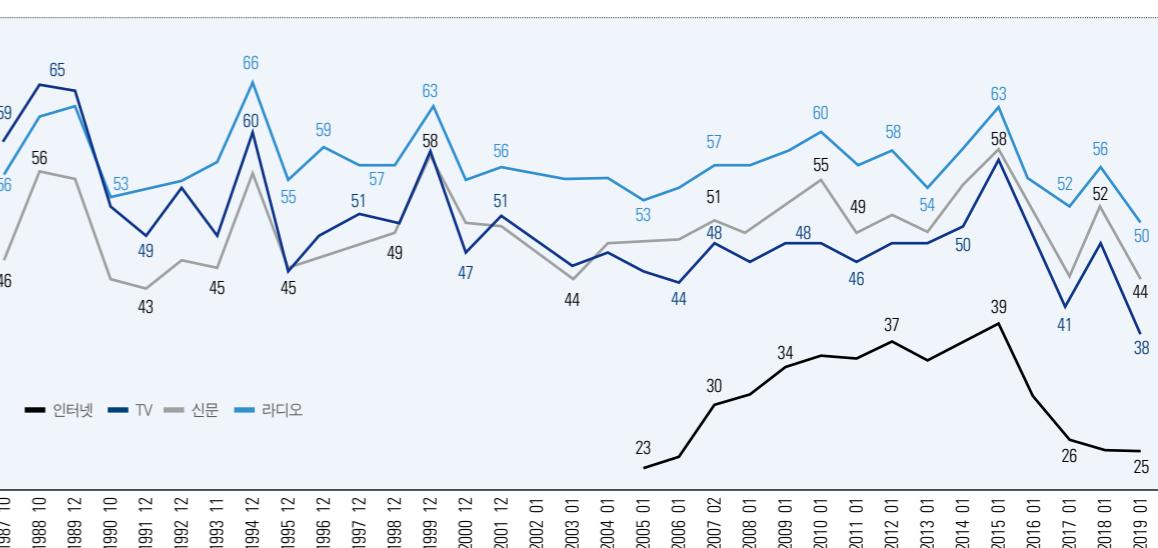
년 ‘언론자유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왔고, 그 자유에 기반해 프랑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고발에 앞장서 왔다. 정부 역시 특별히 언론을 규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의 다원성, 다양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온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기에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인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다. 칸타미디어(Kantar Media)가 80년대부터 진행해온 미디어 신뢰도 조사(Kantar Public et Kantar Media, 2019)에 따르면 미디어별로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인터넷 정보보다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국면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를 보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라디오에 대한 신뢰는 60% 안팎을 기록하고 신문도 50% 내외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015년을 기

점으로 미디어 신뢰도가 가파르게 하락하며 2019년에는 라디오 50%, 신문 44%, 텔레비전은 38%까지 하락했다. 2017~2018년에 잠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sup>[표]</sup> 이는 당시 대선 시기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fake news) 문제가 크게 부각, 인식되면서 일시적으로 레거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신뢰를 보여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서 나타난 프랑스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심지어 24%로 최하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22%에 바로 앞서는 수준까지 낮아졌다(Reuters Institute, 2019).

프랑스인들의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불리는 허위 정보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허위 정보에 대한 문제가 프랑스 내부에서 크게 불거지면서 마크롱 정부는 허위 정보 근절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허위 정보의 문제는 비단 프랑스

[표] 프랑스인의 미디어 신뢰도 추이(%)



&lt;출처: Kantar Public et Kantar Media, 2019&gt;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프랑스인들의 미디어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다. 프랑스인들의 미디어 신뢰도를 하락하게 한 또 다른 계기는 2018년 ‘노란 조끼’ 시위였다. 시위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보여준 왜곡된 시위 현장과 정부 입장의 프레임으로 짜 맞춰 진 보도 내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는 점차 언론을 향했다. 당시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불신으로 프랑스인들은 언론인들을 과거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수치스러운 표현인 ‘콜라보(collabos)’라고 부를 지경이었다.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도 발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 신뢰 회복을 위한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설립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불신은 급기야 언론사 300년 만에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설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간 언론계의 강한 반대로 묻혔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시위 이후, 겉잡을 수 없는 공중의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에마뉘엘 오그(Emmanuel Hoog) 문화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설립을 실행에 옮기게 됐다. 위원회 안착을 위해 당분간 미디어의 윤리 준수를 감시하는 협회인 ‘정보윤리감시센터(ODI, l'Observatoire de la déontologie de l'information)’가 주축이 될 예정이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로 하여금 공중과 언론사, 언론인 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언론사, 언론인, 시민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로 하여금 공중과 언론사,  
언론인 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중요하게 강조됐던  
것은 언론인들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 중요하게 강조됐던 것은 언론인들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분쟁이 제기됐을 경우 정계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분쟁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공중에 대해 허위 정보와 관련해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계획도 있다. 이는 허위 정보가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덧붙여 기자들이 전문직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Le Monde.fr, 2019).

####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와 반발

한편, 모두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설립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기자들 내부에서도 위원회 설립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 정부는 문화부 장관이 위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인과 언론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언론인들 중 일부는 “뉴스를 생산하는 일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설립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르피가로(Le Figaro), 아에프페(AFP), 누벨옵 제르바퇴르(L'Obs), 르뿌앙(Le Point), 엘쎄이(LCI), 프랑스앵테르(France Inter)의 기자 19명은 “언론을 평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자들이어야 하지 언론인들끼리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는 “언론 위원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Cassini, 2019). 언론사들도 위원회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 프랑스의 일부 언론사들은 윤리 위원회나 중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르피가로, 르파리지앵(Le Parisien),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의 대표들은 위원회 설립에 적대적인 입장이라고 전해진다(Cassini, 2019).

위원회가 정부 독립기관이고 언론인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위원회 설립이 정부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궁극적으로 언론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간 제정된 허위 정보에 관한 법률,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 이들은 대선후보였던 장-뤽멜랑숑(Jean-Luc Mélenchon)이 미디어를 비난하며 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을 법률적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던 것에 문화부가 강한 지지를 보냈던 것과 함께 2019년 6월 세드릭 오(Cédric O) 디지털 담당수석이 제시한 언론규제위원회가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당시 언론인들은 정부가 언론에 공권력을 들이대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Cassini, 2019). 이러한 언론인들의 반발은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에 대한 참여 거부 의사로도 나타나고 있다. 아에프페(AFP)를 비롯해 약 20여 개 언론사 언론인 노조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Labracherie, 2019).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가 설립되긴 했지만 겉만 들어졌을 뿐 실질적 역할과 기능 등 내용적 측면에서는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언론사, 언론인, 시민 대표들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청각최고위원회(CSA)와는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을 것인지 등 서서히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언론인,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이 어떠하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공중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진짜 ‘위기’라는 것을. ■

#### 참고문헌

Cassini, S., <Pourquoi la création d'un conseil de déontologie des médias divise les journalistes>, Le Monde, 2019.12.2,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9/12/02/la-creation-d-un-conseil-de-deontologie-des-medias-divise-la-profession\\_6021320\\_3234.html](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9/12/02/la-creation-d-un-conseil-de-deontologie-des-medias-divise-la-profession_6021320_3234.html)

《Digital News Report 2019》, Reuters Institute, 2019

Kantar Public и Kantar Media, «Baromètre 2019 de la confiance des Français dans les media», 2019, <https://fr.kantar.com/m%C3%A9dia/digital/2019/barometre-2019-de-la-confiance-des-francais-dans-les-media/>

Labracherie, J., <Qu'est-ce qu'un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La Revue des médias d'INA, 2019.12.4, <https://larevuedesmedias.ina.fr/conseil-deontologie-journalistique-creation-explications>

<Un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sera créé en décembre>, Le Monde, 2019.11.25, [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9/11/25/un-conseil-de-deontologie-journalistique-verra-le-jour-au-debut-de-decembre\\_6020432\\_3236.html](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9/11/25/un-conseil-de-deontologie-journalistique-verra-le-jour-au-debut-de-decembre_6020432_3236.html)